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불교를 믿고 불교의 교리를 배우고 싶지만 제가 느끼는 불교의 근본적 교리와 현재 행태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불교는 깨우침의 종교라고 하는데 막상 절에 가보면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자식 잘되게 해달라 등 기복 신앙이 대부분입니다. 스님들 또한 열심히 절하고 부처님께 소원 빌면 뭐든지 이뤄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옳은 불교의 모습이고 스님들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은 분명 신이 아닌 인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불교 경전이나 말씀을 보면 신격화 돼 있어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는 돌아가신 분 좋은데 가라고 천도재를 지내거나, 아이들 대학 좋은데 가라고 연등을 사서 다는 등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과연 돈 들여 천도재를 해야 영혼이 좋은 곳을 가는지, 등을 사서 달아야만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는 부처님 사상 말고도 예수의 생애와 사상도 본받을게 많아 성당이나 교회에 나간다면 불교적 교리로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어나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결과는 과거에 본인이 지은 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연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재와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는 있나요?

부처님 말씀과 절에서의 신행 형태가 너무 달라요

불교의 근본 가르침 연기법을 설하는 방편입니다

A 불교는 깨우침의 종교입니다. 기존의 한국불교는 '치마불교다, 기복신앙이다'라는 말들로 표현됐습니다. 그 이유는 유독 여성 불자가 많았던 탓에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절'이라는 기도형식으로 기원했습니다.

예전에는 요즘처럼 경전 번역서가 드물었으며, 교리강좌 또한 흔히 생기는 기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공부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행(行)'이 중시되는 불교핵심 사상으로 인해 정신과 마음을 모아 절을 하며 부, 건강,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원을 성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스님들이 "열심히 절하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하는 말들도 이러한 뜻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연기법인데, 온 힘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면 우주법계에 그 뜻이 전달돼 성취된다고 믿습니다. 즉 부처님이 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말보다도, 그러한 진리를 깨우치신 그 가르침에 의하자면 발원이 있고 성취하려는 간절한 소망과 그에 따르는 생활의 정화와 노력이 포함돼 소원이 성취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에 부처님이 들어 주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크고 영원한 진리를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으로 발견하시고 49년 동안 설법을 하셔서, 후세에 그 가르침을 남긴 까닭에 우리는 신격에 해당하는 성인으로 받드는 것입니다.

또 사찰에서 사후 영혼의 평안을 위한 위령제인 천도재를 지내는데, 이는 우주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여러 단계의 실상세계로 혼령을 잘 보내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학 합격을 위한 성취기원으로 다는 연등은 불교에서 미혹한 중생들을 위해 깨우쳐 밝힌다는 의미로 다는 것입니다.

내담자께서는 불교정신을 공부하면서도 예수정신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부처님과 예수님은 인류의 4대 성인에 속하는 위대한 분들이시며, 궁극적인 가르침은 인류구제를 위한 헌신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신 분이라는 점에서 더하고 덜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연관되는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흔히 불교라고 하면 '업'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강박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쁘거나 좋은 원인이 낳은 결과를 '업'이라고 합니다.

현재라는 시점에서 과거의 결과로 나타난 업을 '알아차리는' 통찰력이 열리는 순간, 지금 할 일로는 긍정적인 의식 또는 행위로 미래의 '업'을 변경시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사랑 듬뿍 퍼드리니, 어르신 미소 가득

희망법당 탐방

자비신행회 어르신식당

자비신행회는 매주 화요일 장애인 ·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점심공양을 하고 있다. 자비신행회가 어르신에게 음식을 듬뿍 담아주고 있는 모습.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시고요?"

서명희 팀장의 반가운 인사로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 '어르신 식당'은 시작한다.

'어르신 식당' 자비봉사자들은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음식을 준비한다. 담당 팀장은 장날 좋은 식재료를 미리 준비한다.

이날 준비한 음식은 모두 6가지. 닭볶음, 도토리묵, 김치, 미역국, 오이무침, 전, 깻잎볶음. 어르신 식당은 매일 독거노인을 위한 밑반찬을 만든다. 하지만 화요일은 어르신들이 오는 날이라 손이 더 간다.

오전 11시. 이른 점심시간이지만 칠순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걸어서 혹은 버스를 타고 일찍부터 식당에 들어선다.

좌석이라야 채 70석이 되지 않는 좁은 식당은 200여 어르신들의 왁자지껄 웃음과 안부를 묻는 목소리에 활기가 넘친다.

오전 11시 30분. 배식이 시작된다. 어른들 손에는 저마다 번호표가 있어 혼잡하지 않다. 음식은 부족함이 없이 드린다. 특히 할아버지들은 식판위에 음식들을 가득 담아서 드시기도 한다.

이곳 어르신 식당은 음식이 워낙 맛있고, 친절하기로 소문이 나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후원금과 후원물품으로 음식을 만드는 신행회에서 이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속사정이 있다. 그래서 심사를 해 70여 명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자격은 개별 면담을 통해 65세 이상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을 우선으로 했다. 더 어려운 어른들에게 점심을 공양하려는 실무자들의 마음이다.

매주 화요일 식당에서 만나는 조금례(70 · 영) 할머니는 "여그가 음식도 맛나게 주고 정갈해서, 특히 봉사하는 분들이 친절하고 여간 따북스럽게 해준다요"라며 칭찬일색이다. 할머니들은 "불교의 자비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단체라 더욱 그렇다고 한다"고 말한다.

2009년에는 총 47회, 2500여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여기에는 800여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탰다.

최근 자비신행회는 이 어른들을 위한 감동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소원 들어주기'이다. 어른들이 꼭 해보고 싶은 소원 한가지를 들어주는 행사였다.

조금례 할머니는 "여그 있는 형님은 오래된 냉장고를 바꾸고 잡다고 혀서 냉장고를 바꿨다요. 또 저그 형님은 간단히 집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전자렌지가 필요하다고 혀서 설치해 줬다요. 너무 감사하지요"라고 소개를 한다.

어른들의 맛있는 점심이 한창일 때, 식당의 한쪽에서 편한마음 한의원에서 한방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다른 날에는 국악공연, 미용봉사 등도 진행된다.

어르신 식당을 찾는 어른들에게는 또 다른 혜택이 몇 가지 있다. 매년 봄, 가을에 나들이, 어르신 생일잔치,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집에 경사가 있으면 떡과 과일을 보내드린다.

어르신이 원하는 것 풀어주는 '소원 들어주기' 인기

일주일에 한 번 여는 어르신 식당 매일 하고 싶어

1994년부터 활동하며 한번도 빠짐없이 자원봉사를 한 정성순(54 · 안락행) 불자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곁에서 자라서인지 여기에 오시는 어른들이 저의 부모님처럼 느껴진다"며 "고향 낙안 민속마을에 있는 종가댁 장녀로, 어려서부터 배운 음식 손맛을 이곳에서 어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사찰 신행단체 불자들이 나와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자비신행회에는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사업과 어르신 식당 운영으로 매일 1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음식을 장만한다. 봉사자들은 주로 광주지역 사찰에서 참여한 불자들로 그들의 변함없는 헌신 봉사는 이 지역에서 유명하다.

자비신행회 사업을 총괄하는 김영섭 사무처장은 "향후 어르신 식당을 매일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하지만 약간의 후원 외에 자부담으로만 운영되는 한계가 있어 매일 운영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어르신 잘 드셨어요?" 손에 사탕을 꼭 쥐어주며 배웅을 하는 서명희 팀장을 뒤로 하고 어른들은 비로소 식당 문을 나선다.

어르신들의 식사가 끝날 무렵 가톨릭 시각장애인 단체인 '막달리나의 집' 식구들이 식당을 찾았다. 벌써 1년째 이곳과 연을 맺어 점심을 먹는다고 한다.

식사가 끝난 오후 1시 반 무렵 자원봉사자들은 설거지와 청소 후 늦은 점심 식사를 했다.

오전부터 바쁜 손놀림으로 피곤했을 법한데 봉사자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의 웃음이 나왔다. 자비의 실천에서 오는 법희였을 것이다.

한편 자비신행회는 재래시장과 광주공원에서 원각사, 연화사, 광주국체청, 원효사, 금선사, 문빈정사, 정안사, 여성불교회, 자비나눔봉사단 등과 같이 진행하는 '십시일반 밥차'를 비롯해 한꽃차문화아카데미와 차봉사 화엄학림, 불교호스피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에서 진행된 재가불자 리더스 클럽을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이곳 법당에서 실시하고 있다. (062)234-0090 후원계좌 광주은행 076-107-013366(예금주 (사)자비신행회)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중국 광동 육조사 (부설)

관 혜능 국제불교대학 개강안내 관

본원에서는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도제 양성과
불교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강함을 알려드립니다

특전 : 우수학생은 장학금 지급 및 중국 광동 육조사 강원과 선원에 유학할 수 있으며 특히 육조 혜능 대사의 법맥을 받을 수 있는 수계 법회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본원의 학생이나 회원은 중국을 비롯한 대만, 싱가폴, 태국, 티벳, 일본 등 불교국가와 갖게 되는 각종 친선교류 행사에 동참할 수 있으며 세계선불교 육조선 회원으로 명실상부한 국제선불교 회원으로서 불교계의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원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 904번지 전화 033)766-2556 팩스 766-2557
■ 분 원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531-1호 전화 010-2878-3380

중국 광동 육조사 (부설) 혜 능 국 제 불 교 대 학

개강일에 육조사 대원 방장님 참석 특강

■ 개강일시 : 2010년 9월 27일(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원주 혜능 국제불교대학 본원

學科	定員	日時	講義時間	教授
佛教科學	25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2시간	송위지 교수, 김방룡 교수(육조단경)
作法	25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시간	청암, 법붕, 종섭스님
佛像造成	25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5시간	불모 금봉스님
書畵	25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시간	청곡(이한동), 김일동(前승가대교수)
佛畵	25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시간	자비불교연구원 원장
陶藝	25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시간	혜오도예연구소, 오석경도예가
風水地理	25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2시간	한국 풍수지리학회장
命理	25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2시간	자인 박기정
觀相學	20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2시간	한국풍수지리학회장
相談心理學	20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2시간	소용주 사과나무심기, 상담심리연구소소장
文藝創作學科	20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2시간	김창직(前경기대 교수), 문예사조 대표
巫俗學	20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2시간	한국민속예술연구원